

제 8호 · 2016년 3월 9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성우 실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



한국해양수산기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

물류이슈

러시아 연방 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 발표

러시아 내륙수운 현황

- 러시아 내륙수로의 총 길이는 10만 1,700km로 약 130개의 항만이 도로 및 철도와 같은 육상운송루트와 연결됨
 - 러시아 내륙수로에는 크레인 등과 같은 화물처리 인프라 시설이 약 940대가 있어 다양한 종류의 화물 운송, 처리 가능함
 - 또한 약 732개의 상하수도가 내륙수로와 연결되어 있음
- 러시아 내륙수운은 전체 운송수단별 비중에서 약 2% 정도 차지함
 - 러시아 내에서 내륙수운이 발달한 곳은 우랄산맥 서쪽의 러시아 유럽지역이며, 이곳의 운송수단별 비중은 '내륙수운 : 철도 : 도로 = 1 : 1 : 8' 비중임
 - 러시아의 전반적인 교통 인프라는 러시아 중앙연방관구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, 운송수단별 비중이 도로가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보아, 도로망이 극동러시아 및 시베리아 지역에 비해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

러시아 내륙수운 물동량 및 여객수

단위 : 백만 톤, 백만 명, %

구분		'00	'08	'09	'10	'11	'12	'13	'14
화물	운송량 ¹	116.8	151	97	102.4	126	142	137.3	124.8
	비중 ²	1.14	1.26	1.03	1.03	1.19	1.3	1.2	1.14
	증가율 ³	기준해	29.3	-17	-12.3	7.9	21.6	17.6	6.8
여객	여객수 ¹	27.7	20	17	16	14.2	13.5	13.2	12.7
	증가율 ³	기준해	-27.8	-38.6	-42.2	-48.7	-51.3	-52.3	-54.2

¹ 러시아 전체 내륙수운 화물 물동량 및 여객수² 러시아 전체 물동량 중 내륙수운이 차지하는 비중³ 2000년 기준 증가율

자료 : 러시아 연방 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, 2016, 부록 1, pp.1-2(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внутреннего вод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,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9 февраля 2016 г. № 327-р, ПРИЛОЖЕНИЕ № 1, pp.1-2)

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

러시아 내륙수운



자료 :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Морского и Ре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, <http://www.morflot.ru/deyatelnost/vwt.html>(검색일 : 2016년 3월 7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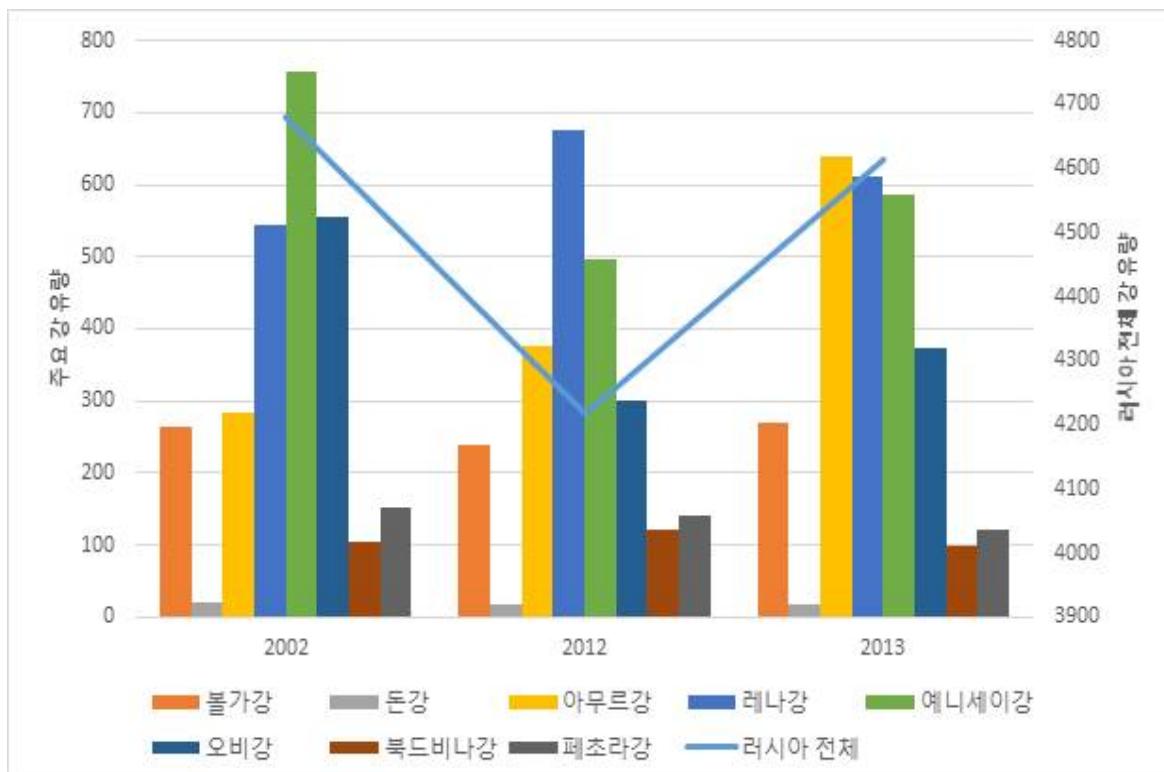
- 1989년 러시아 내륙수운 화물량은 5억 8,000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, 2014년에는 약 5배 감소한 1억 2,480만 톤을 처리함
 -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러시아 내륙수운의 물동량은 1억 1,680만 톤에서 1억 5,100만 톤으로 1.5배 증가함
 -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9년 9,700만 톤으로 감소함
 - 러시아 내륙수운 이용 여객수는 1980년 1억 300만 명에서 2014년 1,270만 명으로 8배 감소함
 - 러시아 내륙수운은 도로 및 철도 등과 같은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이동경로 및 화물 운송에 이용되어 중요한 역할을 함
 - 특히 극동러시아, 시베리아, 북극지역에서는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함
 - 이 지역 중 내륙수운을 이용하는 러시아 연방주체의 전체인구 대비 내륙수운 이용 인구 비중은 다음과 같음
 - 아무르주 84%, 아르한겔스크주 77%, 하바롭스크주 55%, 코미공화국 47%, 사하공화국 26%, 한티-만시자치구 26%, 볼고그라드주 45%, 야로스라브스크주 42%, 사마르스크주 30%임



-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이동수단이 되는 내륙수운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, 계속해서 악화되는 물류 서비스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
- 내륙수운의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및 서비스 질 등의 악화로 인한 한계점 외에도 자연적인 문제점도 존재함
-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강의 전체 유량은 2002년 4,682km³였으나, 계속해서 줄어들어 2012년 약 4,218km³ 까지 감소함
- 2013년 러시아 강의 전체 유량이 약 4,615km³ 까지 증가하였으나, 2002년의 수준에는 못 미침
- 또한 동절기 결빙 문제와 내륙수로의 하천으로 갈수록 얕아지는 수심 등의 한계점이 있음

러시아 주요 강 유량

단위 : 입방 킬로미터



자료 : 러시아 통계청, www.gks.ru(검색일: 2016년 3월 8일), KMI 재구성



러시아 연방 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¹⁾

- 2016년 2월 29일, '러시아 연방 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'(이하 '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')이 승인됨
 - 이번 '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'의 목표는 현재 러시아 내륙수운의 상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내륙수운 시스템을 향상시키고자 함
- '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'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
 - 육상운송과 내륙운송의 화물 트래픽(traffic)을 재분배하여 러시아 운송 시스템 균형 확보하고자 함
 - 내륙수운과 다른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강화, 내륙수운의 경쟁력 확보하고자 함
 - 화주를 위한 내륙수운 서비스 질과 접근성이 증가시키고자 함
 - 승객을 위한 내륙수운 기능 증대시키고자 함
 - 내륙수운 이용 시 안정성 및 친환경성 향상시키고자 함
- 러시아 정부는 이번 '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'을 통해 내륙수운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, 육상운송과 경쟁 시 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함
 - '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'은 2020년까지 1단계가 진행되면, 2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임

2030년까지 러시아 내륙수운 물동량 및 여객수

단위 : 백만 톤, 백만 명

구분	'13	'14	'15	'18	'20	'24	'30
화물	137.3	124.8	124.8	147.5	172.6	199.5	242.2
여객	13.2	12.7	13.6	14.9	15.1	15.7	16.6

자료 : 러시아 연방 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, 2016, 부록 2(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внутреннего вод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,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9 февраля 2016 г. № 327-р, ПРИЛОЖЕНИЕ № 2)

1) 러시아 연방 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의 러시아 명칭은 다음과 같음.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внутреннего вод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,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9 февраля 2016 г. № 327-р



- 러시아 내륙수운 화물 예측 운송량은 2020년 1억 7,260만 톤이며, 2030년까지 2억 4,22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- 여객 이용자 수의 경우 2020년까지 1,570만 명, 2030년까지 1,6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- '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'에서는 러시아 내륙수운의 화물 운송량 및 여객 이용자 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도로 및 철도 등과 같은 다른 운송수단과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함²⁾
 - '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'에 따르면 내륙수운과 육상운송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 질 때 러시아 유럽지역이 가장 경쟁력이 높아 질 것으로 봄
- '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'을 통해 사회 · 경제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
 - 내륙수운의 효율성과 화물 및 여객수가 증가할 것이며, 내륙수운을 통한 대외무역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
 - 또한 내륙수운 운영회사의 수익이 증가되며, 관련 산업이 성장한 것으로 기대함
 - 새로운 선박 건설 및 내륙수운 인프라 시설의 현대화 작업으로 투자가 증가되며, 국내 조선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전망함
 - 전반적으로 내륙수운이 개선·개발될 경우 관광산업 등이 발달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,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함
- 러시아 내륙수운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 및 개선하고자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
 - 조선, 내륙수로 인프라 개선, 내륙수로 항만 인프라 개선, 화물 및 여객 데이터베이스 구축, 고용창출, 과학기술 등의 분야임
- 내륙수로 인프라 개선³⁾ 중에는 극동러시아, 시베리아, 북극지역에서의 화물운송을 위해 내륙수운의 가용성을 높이고자 함
 - 이를 위해 극동러시아 및 시베리아, 북극지역의 수로 탐색 및 개발을 하고자 하며, 향후 북극항로와의 연결로 인한 물동량 증가를 대비하여 내륙수운을 정비, 최적화 하고자 함

2) 러시아 연방 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, 2016, p.10(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внутреннего вод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,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9 февраля 2016 г. № 327-р, п.10)

3) 러시아 연방 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, 2016, 부록 5의 p. 3(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внутреннего вод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,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9 февраля 2016 г. № 327-р, ПРИЛОЖЕНИЕ № 5, п.3)

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

시사점

- 러시아 정부는 이번 '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'을 통해 자국 내 내륙수운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
 - 내륙수운관련 인프라 개선, 접근성 및 가용성 향상, 화물운송을 위한 수로 탐색,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및 여객 서비스 등을 향상 시키고자 함
 - 또한 내륙수운 시스템을 체계화 하고자하며, 이는 향후 북극항로 및 대외무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
- 러시아의 경우 광활한 영토에 비해 도로, 철도, 항공 등의 운송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으며, 이와 같은 운송수단으로 접근되지 않은 지역은 내륙수로가 주요 물류망이 됨
 - 또한 북극항로 상용화가 이슈화 되면서 북극항로와 연계하여 러시아 내륙수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 - 특히 내륙수운을 이용 시 육상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중량화물의 이동이 용이해짐
-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'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'을 발표하였지만 개발단계에 따라 내륙수운 인프라 및 시스템 등이 개선될지는 의문임
 - 기존에 러시아 정부에서 발표한 교통, 항만, 철도, 극동·바이칼 지역-경제 발전 등을 위한 개발전략이 있었으나, 개발전략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유치할 것인지의 의문과 각 개발전략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음
- 러시아 교통·물류 부분에서 도로, 철도, 항만, 내륙수운 등의 각 운송수단별 개발전략이 구축됨
 - 이와 같은 개발전략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, 장기적으로 각각의 운송수단별로 인프라 등이 확대·연결된다면 러시아 물류인프라의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
 - 또한 내륙수운의 개발은 향후 북극항로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, 레나강, 예니세이강, 오비강을 중심으로 극동러시아 및 시베리아로의 새로운 남북 물류루트가 강화되어 동서구간의 철도루트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됨

자료: <http://portnews.ru>, 2016.03.01, 러시아 연방 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, 2016(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внутреннего вод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,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9 февраля 2016 г. № 327-р)

김은미 연구원
051-797-4778, usea1004@kmi.re.kr



물류동향

연해주~돗토리현간 신규 카페리 항로 취항

- 러시아와 일본은 양국 간의 관광 증가에 따라, 러시아 연해주와 일본 돛토리현을 연결하는 새로운 정기 카페리 항로를 취항함
 - 연해주와 돛토리현간 정기 카페리 항로 운영은 금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임
- 지난 3월 2일 극동러시아와 일본은 동해안권에서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연해주 상공회의 소 연맹을 설립하고, 양국의 해상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하는 MOU를 체결함
 - 해당 MOU에 따르면 양국은 카페리 항로를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함
 - 향후 카페리 항로와 연계한 협력 유망 분야로는 농업, 고체폐기물 처리산업, 식품 및 생 선가공 산업, 자동차 산업 등이 있음⁴⁾
- 이번 극동러시아와 일본간 해상협력은 앞으로 양국 지역의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물류, 어업 및 임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

연해주~돗토리현간 신규 카페리 항로



자료: DBS크루즈훼리, http://www.dbsferry.com/02_ticket/ticket03.asp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(검색일: 2016년 3월 7일)

자료: <http://www.gudok.ru>, 2016.03.02.

황윤희 연구원
051-797-4786, hwangyh@kmi.re.kr

4) РИА Новости, <http://ria.ru/world/20160302/1382814880.html>(검색일: 2016년 3월 7일)

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

'메첼'사 거대 석탄매장지인 엘가 광산의 철도라인 매각 예정



자료: <http://ru.wikipedia.org> (검색일: 2016년 3월 7일), KMI 재구성

- 엘가(Elga) 광산은 약 22억 톤의 석탄이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광산으로 포스코(Posco)가 엘가 광산의 소유 및 채굴권을 가진 '메첼(Mechel)'사와 합작으로 광산 개발을 위해 투자⁵⁾하고 지분매각이 언급되었던 곳⁶⁾이기도 함
- 엘가 광산과 바이칼-아무르 철도(BAM)를 잇는 철도건설은 2008년에 착공되어 2012년에는 철도라인이, 2014년에는 76개에 달하는 철도다리까지 완공됨
- '메첼'사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, 2015년 엘가광산을 가스프롬뱅크(Gazprombank,GPB)에 매각하였음
 - 순차적으로 연계 인프라 매각을 위해 이번 철도 라인 매각도 진행중임
 - '메첼'사는 이 철도라인을 건설하면서 제정적 어려움을 많이 겪어 공사 중단 및 대금 지불 불이행으로 법적 공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
- 철도 매각은 '메첼', 석탄회사인 '야쿠트우골(Yakutugol)', 트럭킹 회사인 '네륜그린스카야 모토디포(Neryungrinskaya motor depot)'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'엘가-다로가(Elga-Doroga)'사에 의해 진행될 예정임
 - 작년 12월 러시아 철도청은 철도라인을 매입할만한 자금의 여유가 없다고 언급했지만 올해 2월에 러시아 은행 'VTB'와 함께 아직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⁷⁾

자료: <http://tass.ru/transport/2690278>, 2016.02.24.

이하림 연구원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

5) <http://ww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0111711095849298>(검색일: 2016년 3월 7일)

6) <http://www.ebn.co.kr/news/view/681923>(검색일: 2016년 3월 7일)

3) <http://www.eastrussia.ru/news/zheleznyuyu-dorogu-k-elge-mechel-vydelyaet-v-novyyu-strukturu-ooo-elga-doroga-kommersant/>(검색일: 2016년 3월 7일)